



고전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단어다. 다른 거 다 잊어도, 다 놓쳐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좀 찾는다. 어디가 길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한때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런가? 뭔가 나를 지지해 줄 기반이 있냐 없냐, 누군가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민할 거 없다.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여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발판이 놓여져 있는 거다. 그래서 '과연 내 인생을 잘 도와줄 것인가?'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한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의 고민이다.

우리는 그거 고민할 시간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한다.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아니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왜 마귀 탓을 하나, 왜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하나 이런 말들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속였고, 그리고 그 속임에 우리는 완전히 당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다. 그러니 저쪽(사단)의 전문성이 속이는 거라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잘 속는다. 지금 지구의 80억 인구가 네피림에, 사단에 잡혀 있다. 왜?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마귀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무슨 힘으로 벗어나겠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들고 가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한다고 사단이 해방시켜 주는가? 도망가는가? 벗어나 지는가? 안 그렇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인생은 인생대로 망하게 만든다. 그 존재다.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단 아래에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보고 원죄, 죄인이라고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 돈, 성공. 여기에 심장이 뛰는 거다.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정’

나, 돈, 성공이라는 게 전부 다 함정이라고 한다.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그걸 마음에 담았는데,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거짓말쟁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니, 이 함정에 갇힌 채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

우상숭배, 틀, 영적문제, 개인, 가정, 나라, 시대, 후대

이 사단 아래에서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사단 섬기는 거, 우상숭배하는 것이 인생의 틀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 영적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문제가 바로 찾아오게 된다. 개인, 가정, 나라, 시대, 후대 다 이 아래에서, 영적문제 속에서 재앙을 계속 만난다.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거다.

요일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일을 다 끝내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다.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 그리스도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다. 그 누구도 해방될

수가 없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고전15:3-4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이 믿기만 하면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빠져나오고, 저주 재앙이 나랑 상관없고, 사단과는 완전히 결별이 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한 생명과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거다.

(요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다고 한다.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도 다 이루셨다고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하시고, 세계 복음화까지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거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인가?

"기도" (요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워낙 우리가 '기도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다. 실상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한다. 내가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는 거야를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 주간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야 한다.

언약+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한다.

내 힘 X

그 말인즉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믿음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가?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가? 아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셨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지나?

아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신다.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오직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언약의 대부분은 다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뭔가 도달하고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다 기도 제목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들.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 그것이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나라 정도는, 우리 동네만큼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기도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 힘으로 안 된다고.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강단 말씀 들었다. 일곱 렘넌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언약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왜?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천군 천사가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단도 동일한 전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만해야 하는가?

가라 - 전파 (행13:48)

가야한다. 흠어지는 거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히, 이 시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핍박 고난 어려움 위기라는 것들로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아, 하나님의 최고 시간표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많은 핍박들을 보지만 무엇을 확인하는가? 그 어떠한 핍박도, 그 어떠한 강대국의 힘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빌립 집사 1:3-8

그래서 어떤 흠어져 있던 빌립 집사. 이 사람은 누구인가?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가 어디 갔는가? 사마리아 땅에 갔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행8:4-8

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신다. 빌립 집사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그렇지 않다.

마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일을 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그 일이 빌립 집사의 인생에서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날까?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우리 - 황금어장

그 황금 어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천국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흑암 갇힌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길

마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제목들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 황금 어장이 어디예요? 하나님, 어디가 사각지대고 어디가 재양지대입니까? 하나님, 어느 현장이에요?'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거리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다 방황하고 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36절). 그리스도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를 내일 현장으로도 파송하시는 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불쌍해 보여야 한다. 거울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한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속지 마라. 세상에서 말해주는 여러 보여지는 거 가지고 '나는 그거 없으니까, 슬프다, 그걸 응답으로 받아야지'가 아니지 않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영의 눈을 먼저 열라.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면서 얼마나 불쌍히 있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

결론

일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다.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지금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아서 계속 평생 헤매고 있다. 대대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한 번도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을 말씀하고 계신다. 237나라 5000종족. 언젠간 대한민국이 그런 5000 종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지금 여기,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지 않은가.

주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초대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세워졌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오직 복음 전하려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고전3:16)에 말씀하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나?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초점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 믿는 자가 관심을 가지는 그 현장에 있으신 거다. 또 어디에 있을까?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 하고 계신다. 그 최고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일꾼은 뭐가 수고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다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아 가는 자인 것이다. 그 열매 따라가는 자인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인 것이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뒤에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일꾼은 뭐 하는 자냐? 이 비밀 맡은 자. 그리스도와 기도와 전도의 비밀,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무얼 가지고 있는 자냐? 그거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허락하신 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무슨 뜻이나? 지금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오히려 사단과 대적점에서,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사단은 무얼 제일 싫어할까? 복음. 그리스도 아는 거. 그거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예배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전하는 전도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파하는 이것들을 너무나무 방해하려는 거다. 우리는 이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비밀)

'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비밀이 무엇일까?

복음, 예배, 기도, 전파

'복음'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 복음 누리는 '그 기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롬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진다.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진다. 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뱀의 권세를 박살 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잡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발 아래에 사단이 무릎 꿇고,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40일 집중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집중의 시간이 바로 이 영적 비밀들이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사실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매일 개인 예배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함께 포럼하시고 그 일에 증인되시는 응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심부름하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 안에서 예배하며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그 응답의 한 주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 및 축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써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237나라 5000종족 가운데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37, 치유, 서밋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귀히 여겨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위에, 이들의 산업의 현장 위에, 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위에 그 산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